

사회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진도 조도고 조연주 교사

월급 쪼개 밥까지 지어주며 공부 가르친 ‘섬마을 선생님’

“따뜻한 밥을 먹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인데 큰 상까지 받게됐습니다.”
나도의 제자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며 가르쳐 온 진도 조도고등학교 조연주(여·47·윤리) 교사가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진흥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홍조근정훈장)가 됐다.
이 상은 지난해 11월 교과부의 ‘ 으뜸교사상’과 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 새롭게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조 교사가 섬마을 학교에서 ‘밥 해주는 선생님’이 된 것은 지난 2010년 3월 이 학교 부임 때부터. 조도가 고향이기도 한 그는 “나도 특성상 조순이나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저녁을 먹지 못하



고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밥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부임 직후 학교의 지원으로 비어 있는 창고를 개조해 아담한 급식실을 만들었다.

급식비가 항상 부족해 자신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기 일쑤였지만, 조 교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마냥 좋아 힘든 줄 모르고 밥을 지었다.
교직원과 동문, 지자체, 학교도 힘을 보태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먹을 쌀과 부식 등 급식재료를 마련했다.
조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은 열악한 섬마을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열의와 의지였다.
그의 뒷바라지를 받은 김빛나 양은 조도고 개교 30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조도고 류은숙 교사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지만, 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는 교육 현장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민권익위, 교사 촌지 신고도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지방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이 담긴 케이크를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제과점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공 의장행렬에 임시로 근무했던 대학생은 행사 운영재단이 채용 인원 등을 조작해 임금을 부풀린 사실을 신고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아이쿠 시원해
즐거워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스카이트워 앞에 설치된 분수대에서 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며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for today, including a map of Korea, a table of regional weather, and a 7-day forecast.

광주 봉산유치원 박춘금 원장 홍조근정훈장

일본 뇌염 모기 영광서 첫 발견

박춘금(여·56) 광주 봉산유치원장이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유아교육 부문 제1회 수상자(홍조근정훈장)로 선정됐다.
박 원장은 교단에 몸담는 동안 제자사랑을 실천하고,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학교 교문에서 매일 등·하교 하는 원생들을 보살펴왔다. 시교육청에서 장학관·장학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유치원 교재를 개발하는 등 연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유산의 일부인 3000여만원을 불우이웃 시설에 기탁,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서는 올해 처음으로 영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됐다. 기온 상승과 잦은 불비로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50일 가량 빨리 발견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지난달 22일 영광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모기 1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기 질식사...밀폐된 공간 참사 키웠다

부산 노래방 불·9명 숨져

부산 도심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지난 5일 밤 8시52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 3층 S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 손님 김지원(24)씨 등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는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가연(28)씨 등 스리

랑카인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비롯 부산 금사동 모회사 직원 3명 등 모두 6명이 함께 회식을 하다 번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불은 노래방 입구 쪽 손님이 없던 24번 방에서 시작됐고, 연기가 순식간에 노래방 전체로 퍼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다른 방 손님들이 출입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ijeh Insurance (국제보청기) celebrating 30 years with a 30% OFF SA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YJC Drive (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featuring a driving school facility, a traffic light character, and various vehicles like a truck, bus, car, and motorcyc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